



## 어릿광대의 집념

- 1956년 11월 생
- 경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실장
- 통계청 제11대 청장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 대 기

### I. 글머리에

내 고시공부 하는 동안은 한 개의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런에 물들지 않고

희노에 움직이지 않고

.....

흐르는 눈물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 II. Freshman 시절

나의 freshman시절은 남보다 유달리 길었던 것 같다. 그것은 학과배정이 2학년 2학기에 있었던 때문만이 아니라 대학생살을 처음부터 잘못 인식했기 때문이다.

75년 봄 관악캠퍼스 첫세대로 들어간 그 당시는 정말 세상모르고 살았다. 술, 여자, 춤, 체육대회, 여행 등 쾌락에만 몰두하였으니 과연 고등학교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수없이 느낄 정도였다. 이때는 정말 정력도 좋아 노는데 별로 지칠

줄을 몰랐다. 이러한 무리한 주행으로 결국 1학년이 끝날무렵 허파에 핑크가 나는, 속담에만 들던 기괴한 병의 주인공이 되었다. 너무 웃음을 자주 즐겼나보다.

2학년초 큰형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큰형의 합격은 나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었으니, 그것은 (1) 나로 하여금 법대 지망에서 상과로 전향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고, (2) 고시생활이 비록 힘들긴 하나 그 외형적 평가는 상당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도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었다.

2학기들어 경제학과로 배정받는데 무난히 성공했다. 이는 시험때 협동정신을 발휘한 덕택이라. 좌우시간 이 시절에는 어느 것도 무서운 것이 없었다.

### III. 혼돈, 방황 - 1차시험 합격

경제학과 진입후는 과배정이란 허술한 장애마저 없어져 뜻맞는 친구들과 freshman시절의 연장에 여념이 없었다. 이보다 앞서 여름에 19회 행시공고가 났었다. 형이 응시하면 만원을 준다고 응시하는 척하고 시험장에 가 보았다. 모두가 우습고 불쌍하게 보였다.

곡마단의 어릿광대가 관중을 보고 느끼는 바로 그 감정이었던 것이라.

이후 2학년이 끝날 때까지 가지있는 것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착각에 빠져 대학생활의 참 의의도 모르며 허무하게 보냈다. 안이한 자, 교만한 자 반드시 파멸하리라는 생각을 그뻔 미처 하지 못했다. 2학년이 끝날무렵 그리 잘 나르던 종이비행기는 개천에 떨어지고 처음 사랑을 느꼈던 한 여인도 내 곁을 떠나갔다. 주위의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책들은 나에게겐 너무 생소했고 어느덧 내 자신이 상당히 비참해져 있음을 느꼈다. 확실히 이때는 격동기였다.

이때부터 내 생활의 돌파구로서 고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종이비행기가 아니라 Rocket 타고 우주를 왕복하리라 다짐했다. 이러한 나의 뜻을 하늘이 아시는지 겨울방학에 행시1차시험 공고가 났다. 하늘이 도우는 절호의 찬스구나 생각하고 1차시험과목책을 주서 보아 공부에 임했다. 그러나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에게 예외가 아니었다. 무참히 끝난 처음 시도는 그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방황의 길로 인도했다. 노는 것도 대담하고 규모가 커갔으며 공부는 학교공부든 고시공부든간에 담을 쌓았다. 이 시절 간혹 읽은 책은 합격기가 거의 전부였다.

경제학과에 들어온 지 거의 1년이 지나도록 경제원론의 구조도 채 모르며 지내다 여름에 21회행시가 다가왔다. 계속놀던 타성과 두 번에 걸친 바캉스 후유증으로 공부 잘 안되었지만 이번 1차에 떨어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기에 차근차근 정석대로 공부했다. 1차 시험공부의 정석은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다. 40일을 잡아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도 경험부족에서 오는 착각이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약 2개월은 잡아야 될 것 같다. 1차시험도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며 붙어봤자 약은 없지만 떨어지면 개망신 당하기 때문이다. 공부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지만 발표날 내 이름도 있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성적을 찾아보니 꼴찌였다. 되게 기분이 나빴다.

1차시험후 공부한 여파가 있었던 탓인지 공부가 좀 되는것 같았으나 이내 또 허물어져 이후 77년이 저물도록 어릿광대의 유희를 즐겼다. 간혹 공부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자꾸 끊겨서 효과가 없었다. 역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주위환경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에겐 한가닥 희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내년에 부담없이 2차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과 지금 생활은 이래도 마음만 독하게 먹는다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내년엔 기필코 합격하리라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 IV. 고시생활

대망의 78년 1월 1일, 더 이상 내 자신을 속일 수 없는 날이 왔다. 이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다. 시작이 반이라 처음부터 어려운 과목에 손을 대다가 포기하면 망할 것 같아 취미가 있는 통계학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때는 2차과목 전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던 상태여서 무엇이든 새로웠다. 공부하는 주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했다.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시간에 대한 한계효용은 상당히 높았으며 주위 고시공부하는 사람이 많아 여러모로 배울점이 많았다.

처음 도서관을 다닐때 친구들의 농담어린 비웃음이 많았지만 지난날의 대가로 생각하고 뚜껑이 열리는 날 그들을 비웃으리라 다짐했다. 마침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이 몇몇있어 쓸쓸하거나 지루함을 덜어 주었다.

4학년 신학기에 들어갈 때쯤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른 듯 했다. 이때 내가 느낀 것은 공부는 마음만 독하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습관이 잡히기 전까지는 괜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고 공부가 잘 안되었지만, 가끔 알맞게 술을 마시는 정도로 참아왔다. 세상에 고시공부 재미있다는 놈이 있을까?

새학기에 들어서 헌법, 행정법, 통계학, 행정조직론 강의를 들었다. 짧은 시간에 합격을 노리자면 자기자신을 최대한 가동해야 하고 남들이 좋다는 방법은 고집을 버리고 꼭 취하는 것이 좋다. 강의를 듣는 것은 이런 점에서 효과 100%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잘하면 진짜 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전에 장담한 확신은 고시가 뭔지 제대로 모르면서도 단지 오기와 하룻강아지 패기에 의한 것이었지만 1회

독, 1회독 마칠 때마다 고시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사실 인간이 신념과 인내로서 밀고 나갈 때, 최소한 여태까지 인간이 이루어 왔던 일은 그 어느 것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 5월에 사법시험에 붙은 친구들이 대여섯 나왔다. 이들 중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놈은 하나도 없다. 이는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공부를 늦게 시작한 아쉬움이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과 세미나를 통해 잘 이해되지 않던 부분과 그의 정보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처음 시작한 멤버들은 모두 합격했다. 여러사람의 머리가 뭉치면 확실히 개인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먼저 성실한 구성원이 모여야 하고 또한 그 운용의 묘를 살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헌법을 제외하고는 전과목에서 문제집은 전혀 안보았다. 시간도 적었지만, 문제집의 문제가 그대로 나올리 없고 설사 나와 문제집 그대로 베킨다 하더라도 좋은 점수는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 대신 고시잡지에서 필요한 논문, 예상문제 등을 모조리 잘라 기본서를 보충했다.

고시공부를 하면서 시험 한달전까지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술을 먹은 것 같다. 처음엔 인간을 초월해보자 노력하였는데 이는 나에게겐 뜬 이상이었다. 여기에 한 일화를 들려주고 싶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머리가 좋으니까 일주일에 하루 공부하고 나머지는 놀아도 자신이 있다면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다. 시험에 떨어진 후 작전을 바꿔 일주일에 하루만 놀고 나머지는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공부를 했는데 또 떨어졌다. 이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하루라도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고시는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부를 위해 밤에 잠깐 나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마시는 술은 생활에 활기를 줄 수가 있다. 아무튼 웬만하면 꼭 참는 것이 좋다. 고시 공부하면서 놀아봤자 얼마나 놀겠는가? 젊은 패기가 방구석에 들어 앉아 책이나 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힘의 위축이 아니라 힘의 발동이며 진정한 청춘의 아름다움이다.

사시에 합격한 친구 P군의 조언에 따라 독서방법을 철저한 속독으로 바꾸었다. 나는 속독이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도 역시 습관 나름이었다. 3·5일마다 책이 한권씩 끝나는 즐거움이 있고 부분적인 것보다 전체적 체계를 잡는데 좋았으며, 시험 바로 전날 특히 좋았다. 꼭 속독을 권하고 싶다. 그러나 부분적 이해는 정독함으로써 철저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78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집에 냉방시설이 비교적 잘되어 있었지만 계속 학교도서관을 나갔다. 뜨거운 아스팔트위를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짓 않겠노라고 그리고 이번에 꼭 합격하리라고. 고시생활은 어느덧 내 운명이 되어 있었다.

여름이 지나가고 시험이 차차 다가옴에 따라 공부도 끊기는 일 없이 잘 진행되었다. 그런데 시험을 한달도 채 못남기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 친구의 격려주가 잘못되어 집에도 못들어가고 여관방 신세를 지게 되었다. 다른 때 같으면 별거 아닐지 모르나, 큰 시험을 목전에 두고 이런짓을 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책이 읽히지 않았다. 학교가서 도시락을 까먹고는 나와 영등포거리를 헤매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끝까지 성실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러한 내 태도에 집에서는 내가 고시와는 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D실업입사원서를 내방에 갖다 놓았다.

이것을 본 순간 마음속에는 치미는 것이 있었다. 밤에 잠을 자려도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나를 비웃는 얼굴들이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시험까지는 약 보름-거의 일주일을 개미작거리다가 다시 칼을 뽑았다. 그리고 신에게 기도했다.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 목사가 하던 말이 기억난다. “신이며 도와 달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다만 방해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내 경우는 달랐다. 신이며 요번만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도와주지 않으셔도 좋고 다시는 도와 달라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보름은 집에서 피나는 강행을 했다.

## V. 결전 3일

여태까지의 공부는 이 3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시험 바로 전날 내일 시험과목을 예상문제 등을 뽑는 일없이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독했다.

### 1. 헌법

평소에 김철수교수님 책을 기본서로 강창웅씨 문제집으로 정리했다. 워낙 학설이 많기 때문에 한 교수의 책만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예년과 달리 단답형문제가 있어 상당히 반가웠다. 일문, 대통령, 국회, 법원과의 관계는 워낙 광범위하여 체계를 잡는데 실패했지만 쓸 것은 다 썼고 나머지 작은 문제도 어젯밤 슬쩍 스치고 지나간 것이 생각이나 그런대로 쓸 수 있었다(59.33).

### 2. 행정학

교수님의 책과 기타 잡지의 논문을 참조했다. 일문 인사행정기관의 문제는 전혀 예상밖 이어서 집권, 분권, 단독제, 협의제, 독립성 등을 언급해 주고 우리나라 총무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MBO는 그런대로 썼으나 공무원의 충성과 행정조정은 더듬거렸다(67.66).

### 3. 행정법

박윤환 교수님의 책을 기본서로 강의노트, 논문을 참조했으며 워낙 자신이 없어 문제집을 7권 샀으나 하나도 안 봤다.

행정심판제도도 아침에 훑은 기억이 있었고 작은 문제로서 반사적 이익은 적은 문제였다. 그러나 성적은 의외로 저조했다(59.00).

#### 4. 경제학

경제학도랍시고 경제학은 상당히 소홀히 봤었다. 조순 경제원론에 김덕중 거시, 그리고 미시는 대학에서 강의하던 원서를 그냥 공부했다. 과점(寡占)은 생각지도 않은 문제여서 원론수준에 그쳤고 임금결정은 완벽하게 썼지만 나머지 두 문제는 더듬거렸다(58.66).

경제학은 광범위하고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sub-note를 하고 꼭꼭 씹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

#### 5. 노동법

교수님의 총론에다 잡지 논문을 가장 활용했다. labor injunction은 생전 듣지도 못한 것이고 남들도 다 그런것 같아 걱정이 없었다. 어쨌든 더 잘된 것일지도 몰랐다. 평균자급과 통상자급은 약간 뒤바뀌 썼으며 나머지는 무난히 썼다. 문제가 좀 유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60.33).

#### 6. 통계학

통계학은 경제학과 L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것이 가장 든든했다. 이 강의 노트에 잡지 예상문제를 기본으로 하고 공부했다. 마지막 시험이라 문제가 펼쳐지기 전 초조했던 것은 지금도 생생하다. 일문 단순회귀분석은 서, 가정, 최소자승법, 회귀계수의 성질(BLUE), 결정계수, 추정과 검정의 순으로 거의 다섯장을 다 쓴 것 같다. 최우추정법은 쓸 것이 없어 정규분포에서  $\mu, \sigma^2$ 의 최우추정치를 구했고, 불편불산은 불편성을 증명해 주었으며, 비율분포도 그런대로 썼다. 다 쓰자마자 종이 울렸고 후련한 느낌이 들었다(84.33).

### VI. 마치면서

합격발표까지는 계속 슬독에서 허우적거렸던 것 같다. 큰 실수없이 치룬 시험이라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합격했을 땐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나에겐 좀 과분한 결과였다. 불고나니 후르푸다 뭐다 말이 있었지만 나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그래도 인(忍)과성(誠)을 실행하고자 무던히 애썼던 같다.

고통을 모르는 자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기왕에 고시에 도전키로 했으면 괴롭더라도 꼭 참아야 한다. 순간을 참지 못하여 또 1년, 아니 다른 이의 비웃음이 되는 일은 정말 괴로운 일이다.

고시공부를 하는 제현들께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공부량에 있어 타에 뒤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어떤 시험이든 노장의 합격률은 전체 합격자에 대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기간이 길다고 해서 결코 실력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고시는 학문이 아니라 기술이라 합니다. 밀빠진 독에다 누가 먼저 순간적으로 물을 높이 담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문제의식을 갖고 머리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평소 답안구성도 독창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경우 행정법은 상당히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점수는 저조합니다. 꼼꼼이 반성해보니 단답형 문제에 타이틀을 안붙이고 수필식으로 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답안화 요령, 글씨, 시험전날 당일치기(예상문제는 생각하지 말것), 고시잡지 활용, 기본서 선택, 세미나 등등 고시기술은 다양합니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 자기에겐 좋은 요령을 습득하여 신념과 인내로써 밀고 나갈 때 불가능이란 없을 줄 압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열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